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5.12.(화) / 총3매 (본문2,붙임1)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 최일선 부연구위원(051-797-4727) / 황태건 전문연구원(051-797-4784) 	
배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활용
주요 해수욕장 이용행태 분석 결과 발표**

- 해수욕장, 여름철 방문지 넘어 연중 소비·체류 이어지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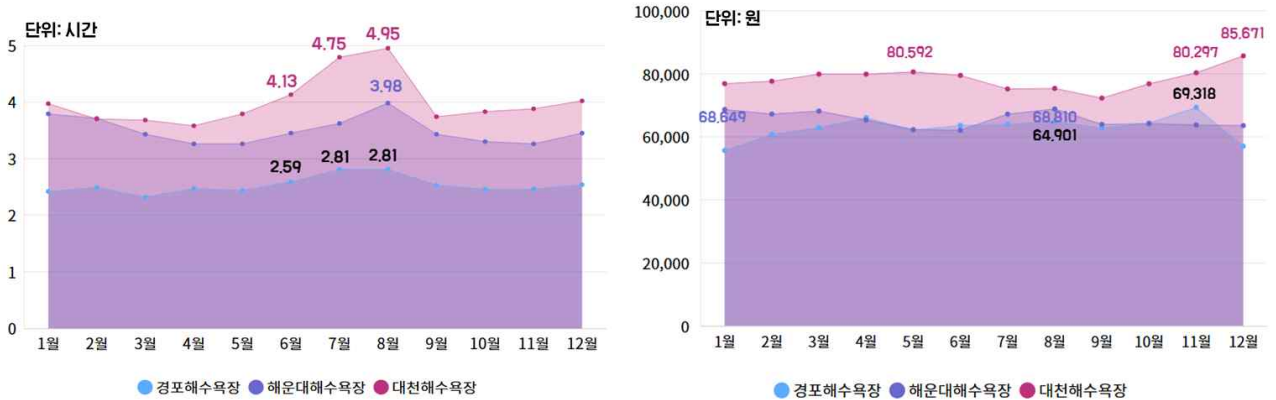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가명정보 결합 빅데이터를 활용해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경포, 해운대, 대천)의 방문·체류·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KMI 홈페이지 내 KMI 동향분석 제222호 참조 (<https://www.kmi.re.kr/web/trebook/list.do?rbsldx=273>)

연구를 수행한 KMI 최일선 박사팀(해양관광·문화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3개 해수욕장 모두 8월에 방문객이 가장 많아 여전히 전통적인 ‘여름 관광지’의 성격을 보였다. 그러나 봄과 가을에도 일정 규모의 방문이 지속되며, 해수욕장이 특정 시기에만 이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연중 방문객을 유인하는 상시적 해양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지출에서는 뚜렷한 탈계절적 이용 패턴이 확인됐다. 연간 일별 1인당 체류시간은 경포 2.3~2.8시간, 해운대 3.2~4.0시간, 대천 3.6~5.0시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비개장 시기인 12월에도 약 4.0시간의 체류시간을 기록해 여름 성수기 시기와 큰 차이 없이 공간 이용이 이루어졌다. 연간 1회 평균 소비지출액도 경포 약 5.5~6.9만 원, 해운대 약 6.2~6.8만 원, 대천 약 7.2~8.5만 원 수준으로 연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해수욕장 방문객 1인당 1일 평균 체류시간 및 1회 평균 소비금액 변화 (2025년)〉



방문객 수와 체류·소비 간 변동성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월별 변동계수^{※※} 분석 결과, 방문객 수는 경포 0.22, 해운대 0.11, 대천 0.2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체류시간은 0.06~0.11, 소비금액은 0.04~0.06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 : 단위와 무관하게 비교 가능, 숫자가 클수록 변동이 큼

이는 해수욕장 방문객 규모가 계절적 수요와 특정 시기 유입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반면, 방문 이후의 체류 및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수욕장의 이용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방문객이 실제로 얼마나 머무르고 소비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장 시기와 비개장 시기 비교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소비건수는 경포 1.6건과 1.5건, 해운대 1.7건과 1.6건, 대천 1.6건과 1.5건으로 시기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1인당 1회 평균 소비금액 역시 경포와 해운대는 개장 시기와 비개장 시기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대천은 비개장 시기 소비금액이 61,892원으로 개장 시기 54,774원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개장 시기에도 해수욕장 주변 활동과 상권 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문객 구성 측면에서는 3개 해수욕장 모두 가족동반 수요가 기본적인 방문구조를 형성하는 가운데 성별 차이보다 연령과 가구유형 차이가 두드러졌다. 개장 시기에는 자녀동반 가족과 20~40대 중심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비개장 시기에는 중·고연령층 중심 가구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해수욕장이 시기별로 서로 다른 수요층을 수용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계절별 수요 특성에 맞춘 운영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상권의 이용업종 구조 변화도 함께 확인됐다.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시기와 비개장 시기 모두 편의점과 일반한식 이용이 최상위 업종을 유지했고, 서양음식과 카페 등 주요 소비업종 역시 시기별 순위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욕장 상권이 여름 성수기의 일시적인 상권에 머무르지 않고, 연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상시 소비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광객 소비가 단순 식사 중심에서 미식과 공간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문객 수 기준 해수욕장별 개장 vs. 비개장 시기 방문객 선호업종 비교>

순위	경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개장	비개장	개장	비개장	개장	비개장
1위	편의점	편의점	일반한식	일반한식	편의점	편의점
2위	일반한식	일반한식	편의점	편의점	일반한식	일반한식
3위	티켓	티켓	서양음식	서양음식	카페	농축수산물
4위	서양음식	서양음식	카페	스낵	슈퍼마켓	카페
5위	카페	카페	스낵	카페	농축수산물	슈퍼마켓
6위	일식회집	일식회집	기타레저업	기타레저업	서양음식	일식회집
7위	스포츠레저용품	기타숙박업	기타음료식품	기타음료식품	기타레저업	기타레저업
8위	기타숙박업	기타음료식품	기타숙박업	기타숙박업	일식회집	서양음식
9위	기타음료식품	슈퍼마켓	티켓	제과점	기타숙박업	기타숙박업
10위	스낵	스낵	제과점	티켓	중국음식	기타음료식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분석은 주요 해수욕장의 이용행태를 방문 규모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 상권 이용구조까지 입체적으로 계량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전하며 “앞으로 해수욕장을 여름철 한시적 이용 공간이 아닌 연안지역의 소비·체류·관광 흐름을 연결하는 연중형 해양관광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해수욕장 유형별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역 상권 연계 전략도 고도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황태건 전문연구원(051-797-4784) <htk@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